

석사학위논문

무용 창작 「유빙 流水」에 대한  
작품 분석

2020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무 용 공 연 전 공

권 보 빈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박재홍

무용 창작 「유빙 流氷」에 대한  
작품 분석

A Study on the Creative Dance Work,  
「Yu Bing (Drift Ice)」

2019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무 용 공 연 전 공

권 보 빈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박재홍

# 무용 창작 「유빙 流氷」에 대한 작품 분석

A Study on the Creative Dance Work,  
「Yu Bing (Drift Ice)」

위 논문을 무용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무 용 공 연 전 공

권 보 빈

권보빈의 무용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19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 국 문 초 록

## 무용 창작 「유빙 流水」에 대한 작품 분석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무    용    공    연    전    공  
권                    보                    빈

본 연구는 시인 신철규의 2011년 조선일보 신춘문에 당선작을 소재로 제작된 무용 창작 「유빙 流水」에 대한 작품 분석을 통해 작품의 의미와 구조에 대해 연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신철규의 시 ‘유빙’은 표면적으로는 연인의 사랑과 이별을 주제로 하고 있으나 이별에 대한 인식 과정과 그 사실을 수용하는 과정이 개성적으로 그려져 있다는 것이 소재로서 이 시가 가진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누구에게나 사랑의 시작과 이별의 순간이 다가온다는 것은 분명하나 이를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독자로 하여금 상상을 통해 자기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철규 시인의 ‘유빙’과 본 연구자의 작품 ‘유빙’의 드라마 발레 성향을 분석하고 관련 시평과 견해, 드라마 발레 자료, 인터넷 자료를 참고해 분석 연구하였다.

작품의 구성은 프롤로그와 3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장에 따라 바뀌는 상기 과정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는 내용, 움직임, 무대장치, 조명, 음악, 의상, 영상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프롤로그에서는 작품의 전반적인 내용

과 의도를 추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역광과 영상을 이용하여 관객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자 하였으며, 1장에서는 이별을 앞둔 연인이 서로를 포기하지 못한 채 이별에 대한 인식 과정을 망설임과 위태로운 감정들로 표현하고자 손, 시선을 중심으로 상체 위주의 표현을 나타내었다. 2장은 행복한 연인에게 자신들의 모습을 투영하며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으로 앞서 1장과는 상반되는 이미지와 감정을 가지고 잔잔하며 밝은 분위기를 자아내고자 하였다. 마지막 3장은 1장의 연인들이 결국은 최초의 입맞춤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자명한 이별 사실을 수용하는 과정에서의 심리적 내적 갈등과 극적인 표현을 위해 붉은 조명과 강한 에너지의 동작, 빨라지는 음악, 크고 많은 동선의 이동을 사용하며 영상으로 마무리하였다.

이 시에서는 ‘나’와 ‘당신’이 만나 ‘우리’라는 관계를 형성해 살아가다 다시 원래의 ‘나’와 ‘당신’으로 돌아가나 ‘처음’의 상태로 회귀하는 것은 아니다. 두 연인의 성향을 상반된 개념을 사용해 은유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방향, 뜨거움과 차가움, 입김과 눈물이라는 양가적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 이별의 원인을 암시한 것이다.

무용창작 「유빙 流水」에서도 직접화법이 아닌 이미지화된 표현으로 이러한 상반된 개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종결의 이별도 시각화해 보여주지는 않고, 섬세한 표현을 통해 관객이 스스로 관련 이미지를 생성해 자기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한편, 무대 위에서 가장 난이도 높은 시공간의 변화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무대장치의 동반이 필수적이므로 차후 보다 효과적, 효율적으로 움직임과 협응할 수 있는 무대장치와 조명의 활용방법에 대한 고안과 적용이 요구되었다.

【주요어】 무용 창작, 신철규, 유빙, 은유적 이미지

# 목 차

|                                  |    |
|----------------------------------|----|
| I. 서 론 .....                     | 1  |
| II. 연구작품의 개요 .....               | 3  |
| 2.1. 안무 의도 및 작품 내용 .....         | 3  |
| 2.2. 작품의 배경 및 분석 .....           | 3  |
| 2.2.1. 신철규 시인의 ‘유빙’ .....        | 3  |
| 2.2.2. 드라마 발레 .....              | 6  |
| 2.3. 작품에 내재된 드라마 발레와 표현 방법 ..... | 9  |
| 2.3.1. 구조 .....                  | 9  |
| 2.3.2. 인물의 행동 .....              | 10 |
| 2.3.3. 장경 .....                  | 11 |
| 2.3.3.1. 의상 .....                | 11 |
| 2.3.3.2. 조명 .....                | 13 |
| 2.3.3.3. 음악 .....                | 13 |
| 2.3.3.4. 영상 .....                | 14 |
| III. 연구작품의 분석 .....              | 15 |
| 3.1. 프롤로그 .....                  | 15 |
| 3.1.1. 내용 및 안무 의도 .....          | 15 |
| 3.1.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         | 15 |
| 3.1.3. 무대장치 및 조명 .....           | 17 |
| 3.1.4. 음악 .....                  | 18 |
| 3.2. 1장: 이별을 앞둔 연인 .....         | 19 |
| 3.2.1 내용 및 안무 의도 .....           | 19 |
| 3.2.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         | 19 |
| 3.2.3. 무대장치 및 표현 .....           | 22 |

|                                   |        |
|-----------------------------------|--------|
| 3.2.4. 음악 .....                   | 22     |
| 3.3. 2장: 행복한 연인의 모습 .....         | 23     |
| 3.3.1. 내용 및 안무 의도 .....           | 23     |
| 3.2.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          | 23     |
| 3.3.3. 무대장치 및 조명 .....            | 26     |
| 3.3.4. 음악 .....                   | 26     |
| 3.4. 3장: 최초의 입맞춤으로 돌아갈 수 없다 ..... | 27     |
| 3.4.1. 내용 및 안무 의도 .....           | 27     |
| 3.4.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          | 29     |
| 3.4.3. 무대장치 및 조명 .....            | 30     |
| 3.4.4. 음악 .....                   | 31     |
| <br>IV. 결 론 .....                 | <br>33 |
| 참 고 문 헌 .....                     | 35     |
| 부        록 .....                  | 37     |
| ABSTRACT .....                    | 39     |

## 표 목 차

|                                       |    |
|---------------------------------------|----|
| [표 2-1] 작품 구조 .....                   | 10 |
| [표 2-2] 움직임 표현 방법 .....               | 11 |
| [표 2-3] 이별을 앞둔 여자, 행복한 여자 의상 비교 ..... | 12 |
| [표 2-4] 작품에 사용한 조명의 유형 .....          | 13 |
| [표 3-1] 등장인물 번호 및 동선 방향 색깔 .....      | 16 |
| [표 3-2] 프롤로그 세부분석 .....               | 18 |
| [표 3-3] 1장 세부분석 .....                 | 22 |
| [표 3-4] 2장 세부분석 .....                 | 26 |
| [표 3-5] 3장 세부분석 .....                 | 32 |

## 그 립 목 차

|                                          |    |
|------------------------------------------|----|
| [그림 2-1] 이별을 앞둔 남자 의상 .....              | 12 |
| [그림 2-2] 행복한 남자 의상 .....                 | 12 |
| [그림 3-1] 이별을 앞둔 연인이 톱니 역방향으로 걷는 모습 ..... | 15 |
| [그림 3-2] 연인의 관계 표현 장면 .....              | 15 |
| [그림 3-3] 프롤로그 등장인물의 동선 .....             | 16 |
| [그림 3-4] 시 영상 1 .....                    | 17 |
| [그림 3-5] 영화 장면 영상 .....                  | 17 |
| [그림 3-6] 연인이 서로를 놓지 못하는 장면 .....         | 19 |
| [그림 3-7] 연인이 어긋나는 모습 .....               | 19 |
| [그림 3-8] 남자가 여자를 붙잡는 모습 .....            | 20 |
| [그림 3-9] 연인이 다른 곳을 향하는 장면 .....          | 20 |
| [그림 3-10] 1장 등장인물의 동선 1 .....            | 21 |
| [그림 3-11] 1장 등장인물의 동선 2 .....            | 21 |
| [그림 3-12] 2장 행복한 연인의 모습 1 .....          | 23 |
| [그림 3-13] 2장 행복한 연인의 모습 2 .....          | 23 |
| [그림 3-14] 2장 등장인물의 동선 1 .....            | 24 |
| [그림 3-15] 2장 등장인물의 동선 2 .....            | 25 |
| [그림 3-16] 2장 등장인물의 동선 3 .....            | 25 |
| [그림 3-17] 3장 이별을 앞둔 연인의 모습 1 .....       | 27 |
| [그림 3-18] 3장 이별을 앞둔 연인의 모습 2 .....       | 27 |
| [그림 3-19] 3장 등장인물의 동선 1 .....            | 28 |
| [그림 3-20] 3장 등장인물의 동선 2 .....            | 29 |
| [그림 3-21] 3장 등장인물의 동선 3 .....            | 29 |
| [그림 3-22] 3장 등장인물의 동선 4 .....            | 30 |
| [그림 3-23] 유빙 이미지 장면 .....                | 31 |
| [그림 3-24] 시 영상 2 .....                   | 31 |

# I. 서 론

본 연구는 무용 창작 「유빙 流水」에 대한 작품 분석을 통해 작품의 의미와 구조에 대해 연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자는 대학원 재학 중 연기법 수업에서 신철규 시인의 ‘유빙’<sup>1)</sup>의 시를 접해 읽고 이별에 대한 잔상이 남아 연구하였다. 남, 여의 이별에 대한 인식 과정과 그 사실을 수용하는 과정이 개성적으로 그려져 있다는 것이 이 시가 가진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신철규의 시는 ‘유빙’은 표면적으로 연인의 사랑과 이별을 주제로 한다. 자명한 이별의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이별의 씁쓸한 현실과 사랑의 고독함, 비극의 잔상이 특별하게 다가와 사랑과 이별이란 무엇일까?라는 자문을 하게 되었고,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지만 결국 이별의 순간을 마주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어 연구했다.

본 연구자가 시를 읽고 느꼈던 것을 바탕으로 관객들과 소통하고 공감을 얻기 위해 드라마 발레(Drama Ballet) 성향의 작품을 안무하였다. 19세기 초, 중반은 낭만발레(Romantic Ballet), 19세기 말에는 고전발레(Classical Ballet)가 주를 이룬 후 사실적이고 감정 표현이 위주인 드라마 발레가 20세기 중반이 되어 나타났다. 작품의 수는 적지만 드라마 발레는 낭만발레, 고전발레와 달리 관객들의 공감대 형성이 쉬워 이해를 도와 관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 그러나 드라마 발레의 수와 연구가 많지 않아 더욱 많은 창작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신철규 시인의 ‘유빙’과 본 연구자의 작품 ‘유빙’ 드라마 발레 성향을 바탕으로 남, 여의 사랑과 이별을 심리적 감정에 중점을 두어 움직임 표현 방법으로 고안하였다. 또한, 시에 대한 평론과 본 연구자의 분석과 해석을 시도하여 ‘유빙’의 작품을 드라마 발레 스타일로 의도하였다. 덧붙여 드라마 발레 특성

---

1) 시 유빙은 시인 신철규가 2011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 당선작이다. 이 시에 대한 시인 문정희와 정호승의 비평은 다음과 같다. “‘유빙’에는 인간의 비극적 관계를 미세하게 통찰하는 개성적인 눈이 있으며 현대사회의 개체적 삶을 ‘각자의 소용돌이 속으로 다른 속도로 떠내려가는 유빙’에 은유한 점은 높이 살만하다. 시 본래의 내재적 리듬감을 살려 유연한 속도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신인다운 내면적 사고의 흐름도 알 수 있게 한다. 무엇보다도 과장된 이미지나 허장성세가 없고 기성의 어떤 억지스러운 틀에 갇혀 있지 않아 자유분방하다.”

에 맞게 조명과 의상, 영상, 음악을 활용해 작품에 내재시킴으로써 의미와 의도에 대해 다양한 표현 방법을 보여주고자 했다.

본 연구는 무용 창작 작품 「유빙 流水」에 관한 작품 분석으로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I 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II장은 ‘유빙’의 시와 드라마 발레의 배경 분석을 바탕으로 작품에 내재된 드라마 발레 그에 따른 작품의 표현 방법 요소를 다루었다. III장에서는 각 장면의 내용, 안무 의도, 구성요소와 표현 방법에 대해 다루었다. 마지막 IV장의 결론에서는 창작 과정을 거치며 연구를 통해 느낀 점과 기대효과 및 한계점을 정리하였다.

## Ⅱ. 연구작품의 개요

### 2.1. 안무 의도 및 작품 내용

#### 2.1.1. 안무 의도

신철규의 시 ‘유빙’에서 얻은 이별에 대한 잔상을 바탕으로 이 작품을 안무하게 되었다. 잔잔하면서도 깊고 강렬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쇼팽의 발라드 1번과 드라마 발레 스타일의 안무를 사용하였으며, 프롤로그와 3장의 마지막 장면에 시와 주제에 대한 이해를 위해 영상을 활용하였다. 누구나 한 번쯤 만남과 이별을 경험했을 것이다. 서로 맞물리며 살아가다 다시 각자의 소용돌이로 유빙처럼 떠도는 인생의 단면에 대해 생각해본다.

#### 2.1.2. 작품 내용

사랑에 눈이 먼 연인은 자신들의 사랑이 단단한 빙하처럼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간은 영원불변할 것 같은 빙하마저 녹여버리고, 갈라진 빙하는 각기 유빙이 되어 망망대해를 떠돈다. ‘우리’에게도 유빙처럼 원래의 ‘나’와 ‘당신’으로 돌아갈 때가 온다.

### 2.2. 작품의 배경 및 분석

#### 2.2.1. 신철규 시인의 ‘유빙’

보통 무용은 시와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곤 한다. 그것은 무용의 언어로서의 움직임과 그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특별한 효과가 시어나 시어의 효과와 유사한 점을 많이 지니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김나영, 1990).

본 연구자는 대학원 재학 중 연기법 수업에서 신철규 시인의 ‘유빙’의 시를 접해 읽고 이별에 대한 잔상이 남아 연구하였다.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김으로 뜨거운 음식을 식힐 수도 있고  
누군가의 언 손을 녹일 수도 있다

눈물 속에 한 사람을 수몰시킬 수도 있고  
눈물 한 방울이 그를 얼어붙게 할 수도 있다

당신은 시계 방향으로,  
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커피 잔을 젖는다  
맞물린 톱니바퀴처럼 우리는 마지막까지 서로를 포기하지 못했다  
점점, 단단한 눈뭉치가 되어갔다  
입김과 눈물로 만든

유리창 너머에서 한 쌍의 연인이 서로에게 눈가루를  
뿌리고 눈을 뭉쳐 던진다  
양팔을 펴고 눈발을 달린다

꽃다발 같은 회오리바람이 불어오고 백사장에 눈이 내린다  
하늘로 날아오르는 하얀 모래알  
우리는 나선을 그리며 비상한다

공중에 펄럭이는 돛  
새하얀 커튼  
해변의 물거품

시계탑에 총을 쏘고  
손목시계를 구두 뒤축으로 으깨버린다고 해도  
우리는  
최초의 입맞춤으로 돌아갈 수 없다

나는 시계 방향으로  
당신은 시계 반대방향으로  
우리는 천천히 각자의 소용돌이 속으로  
다른 속도로 떠내려가는 유빙처럼,

신형철(2011)은 이 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시는 이렇게 심표를 찍고 끝난다. 이 연인들은 결국 헤어졌을까? 시계  
탐에 총을 쓰고 손목시계를 으깨버려도 우리는 최초의 입맞춤으로 돌  
아갈 수 없다는 말의 그 쓸쓸한 단호함에 마음이 흔들렸다. 형식주의  
가 요구하는 언어의 폭력, 반역, 변칙, 질병 등이 이 시에는 많지 않지  
만, 그 대신 다른 중요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진심이다. 입김은 찬 것  
을 녹이기도 하지만 뜨거운 것을 식게도 한다. 눈물은 당신을 감동시  
키기도 하지만 당신을 얼어붙게도 한다. 이처럼 사랑이 변한다는 것  
은, 동일한 것이, 어느 날 문득 정반대의 의미를 갖게 되는 일이다. 그  
때 우리는 '최초의 입맞춤'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가슴을 치며 울고 싶  
어진다. 그 순간의 진심을, 이 시인은 알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었다. 진심은 무적이다.

그는 신철규 시인의 진심 담긴 시를 높게 평가하며 이별을 야기하는 것은  
동일한 것이 정반대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 말한다. 또한 시인 황병승(2014)은  
“이별의 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는다,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나  
누었던 수많은 입김들과 우리가 흘렸던 수많은 눈물들은 이제 단단하게 얼어  
붙었다. 아프게 눈발이 흩날린다. 우리는 최초의 입맞춤으로 돌아갈 수 없다.  
다른 속도로 떠내려가는 유빙처럼, 당신과 나는 끝없이 멀어져 갈 뿐”이라며  
이별의 순간에 봉착해야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은 유빙처럼 끝없이 멀어  
져 간다고 한다.

시인은 이 시를 통해 “헤어진 연인 혹은 헤어짐을 앞둔 연인의 물이 넘칠  
듯 말 듯한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힌 상태”, “오늘 잘 만나다 내일이라도 헤어  
질 수 있는 관계의 아슬아슬함”을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한다. 눈가루를 뿌리  
며 노는 연인, 눈 내리는 백사장 풍경, 새하얀 커튼과 해변의 물거품 등의 이

미지 연출이 영화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 시에는 신철규 시인이 좋아하는 영화 <이터널 선샤인>의 이미지가 담겨 있다고 한다(커피에 쓰다, 2018).

본 연구자는 신철규 시인의 ‘유빙’에 대한 위의 평론 및 견해에 동의하여 시 유빙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시도하였다. 한 연인이 찻집에 마주 앉아 애꿎은 커피 잔만을 젖고 있다. 이별이란 자명하고도 엄혹한 사실이 그들을 주저하게 하며 맞물린 톱니바퀴처럼 마지막까지 서로를 포기하지 못한다. ‘눈 뭉치’라는 단어에는 그들이 익사시키는 눈물과 서로를 녹여주는 입김의 뜻이 응축되어 있다. 미련과 아쉬움, 후회, 추억 따위의 상념이 그 둘의 사이를 파고 든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행복한 연인을 보며 그들은 행복했던 과거를 투영시켜 행복했던 모습을 회상한다.

두 연인의 성향을 상반된 개념을 사용해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는데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 뜨거움과 차가움, 입김과 눈물이라는 양가적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 이별의 원인을 암시하고 있다. 아울러 공중에 펄럭이는 돛, 새하얀 커튼, 해변의 물거품은 소멸과 공허의 의미를 함축한다. 그들은 현실로 복귀해 시계탑에 총을 쏘고 손목시계를 구두 뒤축으로 으깨버린다고 해도 시간은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시간을 되돌려 최초의 입맞춤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존재의 불가능성을 숙지한다. 따라서 그들은 서로의 방향, 속도, 시간을 뒤로한 채 각자 유빙처럼 소용돌이 속으로 떠내려간다는 해석을 하였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위치와 상황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 ‘나’와 ‘당신’이 만나 ‘우리’라는 관계가 형성되어 맞물려 살아가지만, 다시 원래의 ‘나’와 ‘당신’의 모습으로 돌아오며 ‘처음’의 상태로 회귀하는 것은 아니다.

“그의 시에서는 슬픔의 표상으로 “눈물”이 자주 등장한다(최지혜, 2019).”고 하며 그의 작품에 자주 나타나는 것은 슬픔과 눈물임을 언급한다. 신철규(2011)의 ‘유빙’ 시 당선 소감에 따르면 “나의 상처가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면죄부가 되지는 않는다. 우리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상처가 지워지지는 않는다. 우리가 증오해야 할 대상은 상처받은 사람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도 아니다.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상처를 지우기 위해 타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자들이다. 타인은 언제

나 나의 시야에서 멀어진다.

나를 타인의 자리에 놓지 않을 때, 타인의 눈빛과 목소리에 집중하지 않을 때, ‘소통’은 거짓과 위선이 될 수밖에 없다. 자신의 결핍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조금씩 버리는 것이 용기라고 생각한다. 나의 구원만큼 타인의 구원도 중요함을 깨닫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바라보는 현실이 세계의 전부라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위대한 거절’을 실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아이에서 진정한 어른이 된다. 그러나, 언제나 아이처럼 울 것.”이라며 나와 타인의 상처, 소통, 우는 것을 강조한다.

하지만 ‘유빙’의 시처럼 “인간의 슬픔을 관찰하면서 절제된 표현으로 담담하게 써 내려간 작품이 많다(최지혜, 2019).” 이로써 본 작품은 “신철규의 시에서 감정의 자제력을 발견하고 오히려 이방인의 시선을 발견(신형철, 2017)”하는 것처럼 시와 동일하게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한 결말보다는 이미지적 표현적인 결말을 맺으며 관객에게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자기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였다.

## 2.2.2. 드라마 발레

본 연구자가 시를 읽고 느꼈던 것을 바탕으로 관객들과 소통하고 공감을 얻기 위해 드라마 발레 성향의 작품을 안무하였다. 19세기 초, 중반은 낭만발레, 19세기 말에는 고전발레가 주를 이루었다. 테크닉보다 표현력이 더 중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20세기 중반이 되어서야 극적 발레가 나타났다.

극적 발레는 드라마틱 발레(Dramatic Ballet)라고도 불리며, 스토리 발레(Story Ballet)와도 같은 맥락이다. ‘드라마틱(Dramatic)’이란 뜻은 극적인·연극의·감격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드라마(Drama)’는 등장인물의 행위나 행동을 통하여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예술 표현의 한 형태이다(정종훈, 이진숙, 2004). 그러므로 극적 발레는 곧 드라마 발레라 칭해질 수 있다. 장 조르주 노베르(Jean George Noverre)부터 미하일 포킨(Mikhail Fokine), 존 크

랑코(John Cranko), 존 노이마이어(John Neumier), 케네스 맥밀란(Kenneth MacMillan), 보리스 에이프만(Boris Eifman)에 이르러 종합예술로서의 드라마 발레가 발전해왔다. 드라마 발레는 사실적이고 감정 표현이 위주인 발레로 아직 작품의 수는 적지만 환상적이고 신비스러운 낭만발레, 형식적 가치의 중점과 테크닉적인 고전발레와 달리 관객들의 공감대 형성이 쉬워 이해를 도와 관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

현대에 나타난 극적 발레는 고전발레의 기·승·전·결의 형식 구조에 진부함을 느끼고 새로운 방식에 눈을 떠 발레가 지닌 안이함을 깨기 위해 새로운 도전과 창조를 위해 보다 더 극적이고 스펙터클한 성향을 띠게 되었다. 또한 극적 발레는 무용 뿐 아니라 무대장치와 의상, 그리고 음악 등 총체적인 예술 작품으로서 가치를 지닌다(장수진, 2012).

드라마 발레는 형식적인 특성을 지니는데 크게 구조, 인물의 행동, 장경이다. 구조는 작품 전체를 이루는 사건과 요소의 순열을 의미한다. 구조는 제한된 시간의 흐름과 공간 안에서 사건과 전개 순열을 정렬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중요하게 다뤄진다. 구조를 이루는 사건들은 모두 개연성을 띠어야 하며 연결되어야 한다. 다양한 구조의 양식이 존재하지만 프라이타크(G. freytag)의 저서 「희곡의 기교(Technik des Dramas)」에 나오는 5단계가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5단계의 이론은 모든 희곡에 적용되거나 정확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구조 개념을 바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구조 양식이 정교하다.

다섯 단계는 발단(exposition), 상승(development, rising action), 절정(climax), 하강(fall, falling action), 대단원(catastrophe)으로 이루어져 있다. 발단은 극이 시작하고 등장인물과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내용을 진전시키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상승은 관객 및 주인공이 원하는 것들이 여러 방식으로 방해받고 갈등을 겪게 되면서 발전해 가는 단계이다. 크고 작은 자극의 힘들이 상승 행동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 준다. 절정은 연속된 갈등과 위기들로 인해 극중 대립하는 등장인물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부분으로 극적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솟는 단계이다. 이 부분에서 주인공은 가장 분명하고 강력한 자기발견을 한다. 하강은 절정을 통해 드러난 주인공이 자신의 운명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진전되는 단계이다. 이 부분은 다른 단계들에 비해 짧기 때문에 결말로 가는 짧은 연결 다리 정도로 보아 결말에 통합되기도 한다. 대단원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극을 마무리짓는 단계이다(김다희, 2013).

인물은 성격을 의미하며 무용수가 인물의 성격을 부여받고 그것을 나타내었을 때 부각된다. 또한, 행동은 곧 무용수의 움직임 뜻하는데, 무용수가 인물의 성격을 부여받아 그것을 움직임으로 연결되어 채색될 때 가장 온전한 인물의 행동이 나오는 것이다. 특히 드라마 발레에서는 줄거리의 전개와 사건의 흐름을 위해 무용수의 성격과 행동이 보다 중요시된다.

장경은 작품에서 시각적으로 보이거나 전반적으로 표현되는 요소이다. 즉 의상, 조명, 음악, 무대장치이다. 작품의 이미지와 주제에 맞도록 디자인되고 무대효과와 목적에 맞게 제작된 무용 의상은 그 작품의 예술성, 성격, 내용, 주제를 표현할 뿐 아니라 관객에게 시각적 만족감을 전달하며 무용에 있어서 시각적 측면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무용 의상은 단순한 표현의 도구로써 쓰일 뿐 아니라 의미의 생산자이고 관객과의 소통을 도모하는 코드로써 쓰일 수 있음이 분명해진다고 볼 수 있다(김태원, 1991). 의상은 추상적인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시각화하여 작품의 분위기와 의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며 작품에 맞는 색상, 디자인, 재질, 길이 등의 요소까지도 의상을 통해 작품에 전달된다.

무용에서 조명의 현란한 빛은 아무런 장식 없이도 무용을 아름답게 할 수 있다. 조명의 색(color), 강도(intensity), 분배(distribution) 등을 조화롭게 조절(movement)해 나가면 무용의 모습은 판이하게 새로운 세계를 창출해 낸다. 무용에서 조명의 역할은 단순한 무용수들을 밝게 보이게 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조명을 통해 안무가의 의도를 표출시킬 수 있으며 어떤 화려한 무대 장치보다 아름다운 무용을 보일 수도 있고, 그 어떤 음울한 음악보다 무거운 분위기를 끌어내일 수도 있다(신호, 2013). 무대 전체의 시각적 효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명은 작가의 의도, 전체적인 이미지, 동작에 어울리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극적 발레 음악은 단순히 발레의 반주 역할이 아니라 무용수들의 예술적

영감과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다시 말해 발레와 음악은 동등한 자격이라는 것이다(장수진, 2012). 음악의 카운트(count)와 리듬 등을 적절히 사용하여 동작에 따라 정확히 움직여야 의도하고자 하는 표현이 극대화된다.

무용 작품에서 음악은 이해와 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무용 작품은 독창적인 무용 기법을 분절화하거나 연결하는 분석을 통해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작품 전체가 주는 정서와 느낌, 인지 등이 서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인식되어진다. 그 과정에서 음악은 인식을 구체화 시켜 작품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는 소통의 역할을 한다(안혜원, 김은수, 2015).

무대장치는 작품의 의상, 조명, 음악이 갖는 목적과 의도에 상호 관계로서 적용되어야 하고 의도와 분위기를 시각적으로 구체화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역할이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각각의 개연성을 띠고 유기적으로 연결이 될 때 드라마 발레로서 역할을 하는 형식적인 특성을 지닌다.

## 2.3. 작품에 내재된 드라마 발레와 표현 방법

본 작품은 드라마 발레의 스타일로 위에서 언급한 구조, 인물의 행동, 장경의 형식적인 특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어떻게 표현 방법으로 서 작품에 스며들어 표현하였는지 분석했다.

### 2.3.1. 구조

먼저 작품 구조는 프롤로그와 3장의 장면으로 프롤로그-1장-2장-3장 순으로 진행되며 한 연인의 이별 과정을 담았다. 프라이 타크의 희곡의 기교를 바탕으로 프롤로그, 1장 발단, 2장 상승, 3장 절정과 하강과 마지막 영상을 대단원의 장면으로 구성했다.

헤어짐을 앞둔 연인이 행복한 연인의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자신들을 투영하여 행복했던 과거를 회상하지만 결국 처음으로 회귀하지 못하고 헤어지

게 되는 형식이다. 본 작품 주제의 이해도를 높기 위해 프롤로그와 마지막 3장에는 시, 영화, 이미지의 영상 상영을 사용하였다. 다음과 같이 [표 2-1]로 정리할 수 있다.

표 2-1. 작품의 구조

| 장 구분 | 이미지                    | 표현방법                                                                           | 시간     |
|------|------------------------|--------------------------------------------------------------------------------|--------|
| 프롤로그 | 남, 여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걷는 모습 | 영상 상영과 무용수의 실루엣을 시작으로 작품의 전반적인 내용과 의도를 추상적으로 표현함                               | 4'     |
| 1장   | 이별을 앞둔 연인의 모습          | - 멀어지면 다시 가까워지고 떠나면 다시 붙잡으며 서로에게 기대는 듯한 동작 사용함<br>- 손과 상체의 접촉 중점으로 섬세한 감정을 표현함 | 4'     |
| 2장   | 행복한 연인의 모습             | - 서로의 시선과 호흡을 느끼면서 같은 방향을 바라봄<br>- 차분하면서도 밝은 분위기를 연출함                          | 3'     |
| 3장   | 이별하는 연인                | 빠른 동작과 음악, 큰 동선의 움직임이 역동성을 주며 모든 감정이 몰아치는 감정 표현                                | 4' 30" |

### 2.3.2. 인물의 행동

우리는 의외로 무용 작품에서 극적인 양상이나 극적인 긴장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무용수들 간의 관계나 힘의 흐름, 갈등, 공간의 변형 등에서도 극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김나영, 1993).

본 연구자가 시를 해석하고 분석 시도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물의 행동을 설정하였다. 각 무용수에게 인물의 상황과 표현하고자 하는 느낌과 성격을 부여하고 그것을 움직임으로 연결하여 나타내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무용수들의 심리적 내적 갈등과 분위기를 드라마 발레의 사실적 표현에 맞게 인물의 행동을 초점으로 나타내고자 했다.

또한, 1장과 3장의 이별을 앞둔 현재의 연인과 2장의 행복한 연인을 대조적으로 시간, 에너지, 공간의 동기를 사용하여 각 장마다 표현 방법과 기대효과를 다르게 설정했다. 동작의 속도와 크기, 시선 처리, 공간 사용, 다른 움직임

임을 질적 차이를 두고 작품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끌어가고자 했다. 다음과 같이 움직임 표현 방법을 [표 2-2]로 정리하였다.

표 2-2. 움직임 표현 방법

| 동기              | 표현방법                  | 기대효과                                                                                                                                                              |
|-----------------|-----------------------|-------------------------------------------------------------------------------------------------------------------------------------------------------------------|
| 시간<br>(Time)    | 멈춤, 느리게,<br>빠르게, 반복하기 | 동작을 순간적으로 멈추고, 반복하고, 움직임의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정확한 의도와 느낌, 감정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
| 에너지<br>(Energy) | 서로의 접촉을<br>이용한 에너지사용  | 밀고 당기는 에너지와 서로에게 힘을 주고받는 강, 약 조절을 통하여 관계와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
| 공간<br>(Space)   | 과거의 사랑과<br>이별의 공간     | - 이별을 앞둔 연인과 행복한 연인의 무대의 공간 사용이 교차되면서 과거의 사랑을 대조적으로 잘 드러내고자 하였다.<br>- 행복한 연인을 표현할 때는 동선의 이동이 많지 않지만, 크고 강한 동작이 사용될 때는 공간의 이동이 빠르고 자주 바뀌며 복잡한 감정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

### 2.3.3. 장경

#### 2.3.3.1. 의상

본 작품에 있어서 의상은 4명의 무용수가 각자 두 커플(couple) 씩 의상을 맞춰 사용하며 4명의 무용수 의상 모두 특별한 장식이나 무늬 없이 색감만을 이용하여 차갑고 따뜻한 대조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별을 앞둔 커플의 의상은 얼음처럼 차가운 이미지를 주기 위해 푸른색 계열, 행복한 커플은 분홍색 계열의 의상을 입어 봄날의 느낌을 표현하였다.

아래 [그림 2-1], [그림 2-2]과 같이 양쪽 커플의 남자 무용수 의상 형태는 상, 하의가 분리되지 않은 채 상체의 가슴부터 어깨와 손목까지 망사처리된 의상을 입었다. 그들의 의상 형태와 재질은 동일하지만 색상에 차이를 두어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1, 3장의 헤어짐을 앞둔 여자 무용수와 2장의 행복한 여자 무용수는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형태, 색상, 재질이 다른 의상을 사용하며 양가의 이미지를 극대화했다[표 2-3].



그림 2-1. 이별의 앞둔 남자 의상



그림 2-2. 행복한 남자 의상

표 2-3. 이별을 앞둔 여자, 행복한 여자 의상 비교

|     | 이별을 앞둔 여자 의상                                                                                                                                             | 행복한 여자 의상                                                                                                                                           |
|-----|----------------------------------------------------------------------------------------------------------------------------------------------------------|-----------------------------------------------------------------------------------------------------------------------------------------------------|
| 형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거운 느낌을 위하여 발목 위의 길이의 긴 의상과 두 겹의 치마를 사용함</li> <li>- 상체 위주 표현의 가슴, 어깨 방향, 손을 강조하기 위하여 가슴골이 파인 의상을 사용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벼운 느낌을 위해 무릎 살짝 아래의 치마 길이를 사용함</li> <li>- 상체와 하체가 분리된 레오타드(leotard) 형식과 랩 치마(lap skirt) 형식을 갖추</li> </ul> |
| 색상  | 차가운 이미지를 위해 겉의 몸통과 치마는 푸른색의 차가운 밝은 연청색과 안쪽의 치마는 연회색을 사용함                                                                                                 | 밝은 꽃이 피어나는 느낌을 주기 위해 분홍색을 사용함                                                                                                                       |
| 재질  | 몸통은 천의 재질이며 치마는 360도 넓은 시폰(Chiffon) 소재를 사용한 치마로 바람에 훑날리는 듯한 로맨틱한 표현을 의도함                                                                                 | 상, 하체 모두 폴리에스테르(Polyester) 소재로 몸에 꼭 끼어 잘 맞고 아래로 뚝 떨어지는 치마로 차분한 표현을 의도함                                                                              |
| 이미지 |                                                                       |                                                                 |

### 2.3.3.2. 조명

작품의 전체적인 조명은 두광(Top light)과 역광(Back light)을 사용하여 각 장에 맞는 분위기와 색감을 연출하며 무용수들의 동선과 상황에 맞게 빛을 사용하였다. 무용수가 춤을 추기 전에 뒤 벽면에 벨벳 소재의 커튼이 쳐지며 물결 모양의 배경이 생기는데, 그곳 아래에 역광을 사용하여 작품의 전체적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표 2-4. 작품에 사용한 조명의 유형

| 조명 방향              | 특징                 | 효과                                                                    |
|--------------------|--------------------|-----------------------------------------------------------------------|
| 역광<br>(Back light) | 피사체의 뒤쪽에서 비추는 조명   | - 윤곽이 선명하게 드러나며, 배경에서 분리되어 드러난다.<br>- 역광은 엄숙함, 신비스럽고 환상적인 느낌 등을 표현한다. |
| 두광<br>(Top light)  | 피사체의 머리 위에서 비추는 조명 | - 피사체를 짧게 보이게 만든다.<br>- 특별한 구역이나 강조 등을 위해 독립적으로 표현하는데 사용한다.           |

### 2.3.3.3. 음악

본 연구자의 작품에는 총 2개의 음악이 사용되었는데 먼저 프롤로그의 음악은 작곡가 에지오 보소(Ezio Bosso)의 ‘Rain In Your Black Eyes’이다. 연구자는 이 음악에서 물결치는 바다의 너울 이미지를 떠올리고 차분하면서도 바다의 차가운 이미지가 마치 ‘유빙’ 시의 이미지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여 에필로그와 마지막 영상 부분에 음악을 사용했다. 맨 앞과 마지막이 같은 음악을 사용함으로써 유빙처럼 계속해서 떠내려가는 진행 상황임을 표현하고 싶었다.

1장과 2장, 3장에서 연속적으로 사용된 두 번째 음악은 프레데릭 쇼팽(Frédéric Chopin)의 ‘Ballade No. 1 in G Minor, Op. 23’이다. “극히 심오하고 열정적이고 정교하며, 풍요한 명상과 환상과 걱정을 지닌 시적 감수성을 표출하는(윤은지, 2005)” 낭만 시대의 이 곡은 작품의 드라마 발레와 잘 어우

러진다.

또한, 한 곡을 연결 사용함으로써 호흡, 감정, 몰입도가 끊기지 않고 작품과의 연결성이 좋다고 판단하여 이 음악을 사용했다. 언제 폭풍이 닥칠지 모르는 불안함, 폭풍전야, 폭풍이 몰아칠 때의 느낌을 받았다. 1장 시작부터 마치 폭풍이 저 멀리서부터 오고 있다는 불길한 암시가 들며 분위기는 점점 고조된다.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폭풍전야의 잔잔함의 선율이 2장의 행복한 커플과 분위기와 잘 어우러진다. 3장의 절정 부분이 2장에서 잔잔하고 밝게 깔리며 복선을 암시하지만 3장에서는 폭풍이 몰아치듯 커지고 빨라지며 무용수들의 불안함, 후회, 미련의 복잡한 내면의 감정을 표현한다.

#### 2.3.3.4. 영상

본 연구자는 영상을 활용하여 무대장치를 사용하였다. 작품의 프롤로그와 3장 마지막 장면에 영상을 상영하여 무대의 벽면 프로젝션 스크린(projection screen)에 빔(beam)을 투사하여 VTR (videotape recorder)을 사용하였다. 김아영(2008)은 영상의 활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무용 안무가와 영상작가의 만남을 통해서 무대 위에서 행해지는 무용수들의 움직임의 이미지들, 또는 무대공간의 전체적인 이미지들을 확대, 축소 시킬 수 있고, 관객을 위한 각도와 거리를 조절하는 기능에 따라 능동적으로 변형되어 인지되는 또 다른 새로운 시간, 공간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 이러한 영상매체의 장점을 살려 무용의 한계성 안에서의 영상을 통한 재구성 작업은 작품의 의미 전달을 강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또 무용수의 움직임을 변화시켜 무대 위에서 행해지는 현재의 시간, 공간의 제약을 자유롭게 한다.

본 연구자가 신철규 시인의 ‘유빙’의 시를 무용 창작 작품으로 안무했기에 시의 일부를 프롤로그와 마지막 장면에 삽입하며 강조하고, 영상들을 사용함으로써 작품의 시작과 끝을 맺고 관객에게 전반적인 작품의 흐름과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자 의도했다.

### Ⅲ. 연구작품의 분석

#### 3.1. 프롤로그

##### 3.1.1. 내용 및 안무 의도

시의 본문에 나오는 ‘맞물린 톱니바퀴처럼’이라는 구절을 남자와 여자가 역방향으로 맞물려 걷다가 어긋나는 모습으로 연상하여 프롤로그를 구성하였다. 처음 등장하는 남자와 여자가 하체 중심의 무거운 걸음걸이로 서로 맞물려 걸으며 등장하는데 그들이 서로 시선을 바라보고, 손을 잡고, 포옹하는 등 상체 위주의 접촉 동작을 통해 연인이라는 상징적 관계를 추상적으로 보여주고자 의도했다. 아울러 영상 상영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진행될 작품의 내용이나 의도에 대해 보여주며 복선을 암시하고자 했다.

##### 3.1.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그림 3-1. 이별을 앞둔 연인이 톱니  
역방향으로 걷는 모습



그림 3-2. 연인의 관계 표현 장면

[그림 3-1], [그림 3-2]와 같이 무용수들은 연인의 관계로써 맞물려 역방향으로 걷고, 접촉하는 이미지로 표현하며 뒤에 나올 작품의 호기심 유발에 목적을 두었다. 그리하여 프롤로그에서는 크고 강한 움직임보다는 간결한 움직임과 구성에 중점을 두었다. [그림 3-3]의 ①, ②번 두 무용수가 각각의 위치에서 걸어 나오고 그들은 원 안을 그리다가 그들은 각자의 위치로 다시 멀어지며 그들이 맞물려 역방향으로 걸으며 어긋났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아래의 [표 3-1]은 앞으로 나올 등장인물의 동선을 각각 번호와 방향 색깔로 구분하였다.

표 3-1. 등장인물 번호 및 동선 방향 색깔

| 번호 | 등장인물          | 동선 표시 색깔 |
|----|---------------|----------|
| ①  | 이별을 앞둔 연인의 여자 | →        |
| ②  | 이별을 앞둔 연인의 남자 | →        |
| ③  | 행복한 연인의 여자    | →        |
| ④  | 행복한 연인의 남자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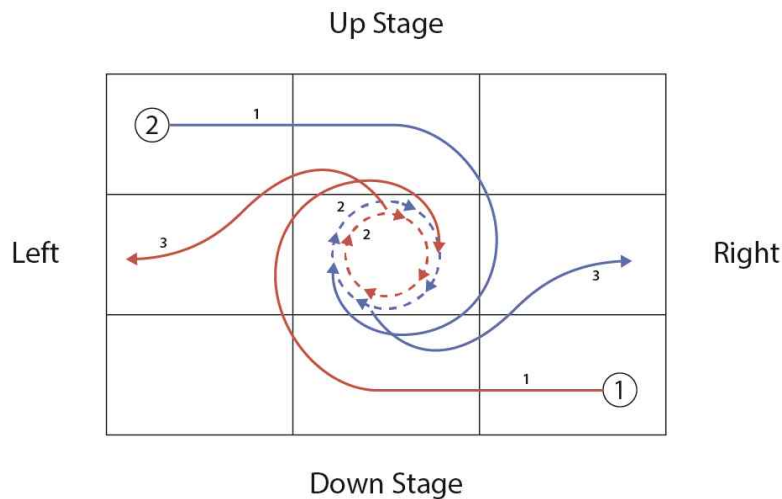


그림 3-3. 프롤로그 등장인물의 동선

### 3.1.3. 무대 장치 및 조명

프롤로그의 영상은 신철규 시인의 ‘유빙’의 시 일부,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영상, 영화 ‘이터널 선샤인(*Eternal Sunshine*)’의 일부를 이미지화 제작 후에 사용하였다. 작품의 도입부에 영상을 사용함으로써 관객들이 앞으로 시작될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를 그리며, 무용수들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의도하였다. 프롤로그에서 상영한 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당신은 시계 방향으로, 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커피 잔을 젓는다.  
맞물린 톱니바퀴처럼 우리는 마지막까지 서로를 포기하지 못했다.

시에 나오는 ‘톱니바퀴처럼 우리는 마지막까지 서로를 포기하지 못했다’라는 구문의 이미지를 위하여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영상이 사용되었고, ‘이터널 선샤인’의 영화 일부는 눈과 얼음, 바다가 이미지적으로 부합하면 서도 행복한 연인의 장면을 보여주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였다[그림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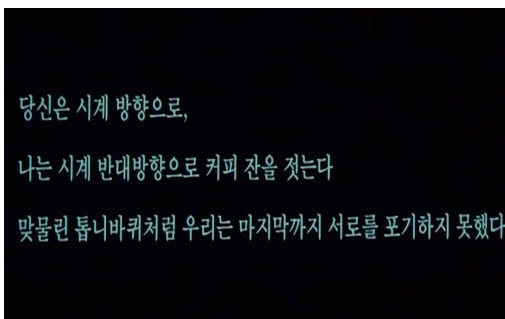


그림 3-4. 시 영상 1  
(톱니바퀴 은유표현)



그림 3-5. 영화 장면 영상  
(*Eternal Sunshine*)

프롤로그에서는 역광을 이용하여 무용수들의 윤곽만으로 보이는 이미지로 신비함, 엄숙함을 만들고자 하였다. 따라서, 첫 등장은 관객의 호기심과 집중도를 높이고 초반의 엄숙한 분위기, 선명한 이미지를 위해 무용수들을 실루엣으로 표현하는 무대 전체에 넓은 역광을 사용하였다. 무용수들의 그림자만이 비추며 걸어 나오다가 두광이 켜지며 그들만을 비추는데, 이것은 그들이 신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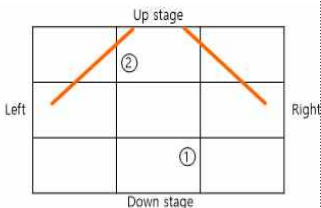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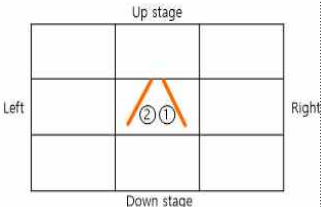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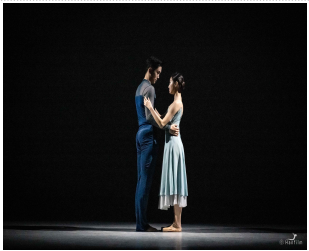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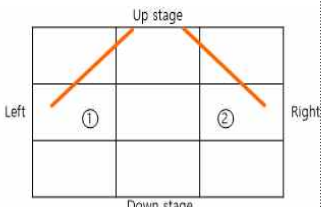
적인 접촉하는 것을 강조하며 암묵적으로 그들의 관계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어서 첫 등장과 동일한 역광을 사용해 실루엣만을 비추며 무용수의 퇴장과 동시에 천천히 조명이 암전 된다.

### 3.1.4. 음악

음악과 동시에 작품이 시작된다. 잔잔하지만 무거운 음악으로 어두운 분위기를 조성하며 음악은 점점 커지기 시작하며, 중간마다 장면 전환이 될 때 음악은 무음으로 흐르지 않는다. 무음을 반복 사용함으로써 움직임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고 무용수의 에너지만으로 공간을 채우도록 의도하고, 무용수들이 퇴장하며 음악도 함께 서서히 작아지도록 하였다.

표 3-2. 프롤로그 세부분석

조명 방향: —

| 조명                                                                                  | 이미지                                                                                 | 세부분석                                                                             |
|-------------------------------------------------------------------------------------|-------------------------------------------------------------------------------------|----------------------------------------------------------------------------------|
|   |   | <p>음악이 가장 먼저 시작된 후 무용수들이 등장하며 신비함과 강한 이미지를 위해 무대 전체에 넓은 80%의 역광 사용함 (1' 20")</p> |
|  |  | <p>집중 효과를 위해 동작 사이에 무음이 반복되고 무대 중심에 강한 흰색 두광을 60% 사용함 (1' 30")</p>               |
|  |  | <p>맨 처음과 같은 무대 전체 넓은 80% 역광을 사용하고 무용수들의 퇴장과 동시에 서서히 조명과 음악이 사라짐 (1' 10")</p>     |

### 3.2. 1장: 이별을 앞둔 연인

#### 3.2.1. 내용 및 안무 의도

한 남자와 여자가 고민과 망설임이 깃들여 있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마주하지만 그들의 만남은 서로를 기쁘거나 반갑게 대하지 않고 오히려 애써 마주하는 느낌이다. 이로써 그들이 현재 불안하고 내적 갈등 상황임을 표현하였다. 이들은 안정적인 연인의 형태가 아닌 살얼음판을 걷는 아슬한 형태의 연인 관계를 의도하였다. 남, 여가 손을 잡지만 다른 곳을 바라보고, 같은 방향이지만 각자 다른 곳을 향하며, 마주하지만 엇갈리는 동선과 동작을 자주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불길한 미래를 암시하고자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떠나지 못하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서로를 포기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 그들의 망설임과 위태로움, 불안함의 감정과 움직임을 바탕으로 1장을 구성하였다.

#### 3.2.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그림 3-6. 연인이 서로를 놓지 못하는 장면



그림 3-7. 연인이 어긋나는 모습



그림 3-8. 남자가 여자를 붙잡는 모습



그림 3-9. 연인이 다른 곳을 향하는 장면

남녀가 각 Stage RD(Right down), Stage LU(Left Up)에서 등장한다. 이후 위의 [그림 3-7]와 [그림 3-9]처럼 그들은 같은 동작을 하지만 서로 등을 마주하거나 그들이 향하는 곳의 방향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그림 3-6]와 [그림 3-8]에 보이는 것과 같이 그들은 서로를 놓을 수 없고 포기하지 못하는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그들의 미련이나 아쉬움 같은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초반에는 [그림 3-10]에서 보이는 동선의 이동이 천천히 진행되어 그들의 망설임을 의도하였고, [그림 3-11]은 뒤로 갈수록 동선 이동이 많고 빨라지며 무용수들의 망설임과 복잡함의 내면을 섬세하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1장은 남녀가 엇갈리고 위태로운 모습을 시선과 몸의 방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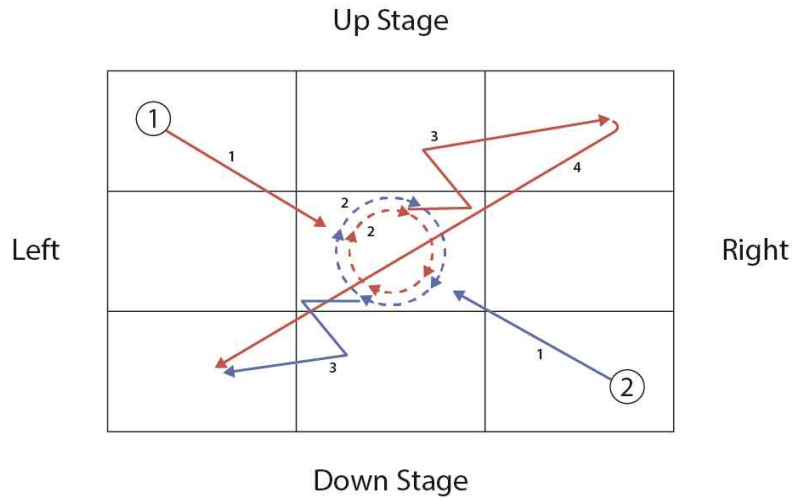


그림 3-10. 1장 등장인물의 동선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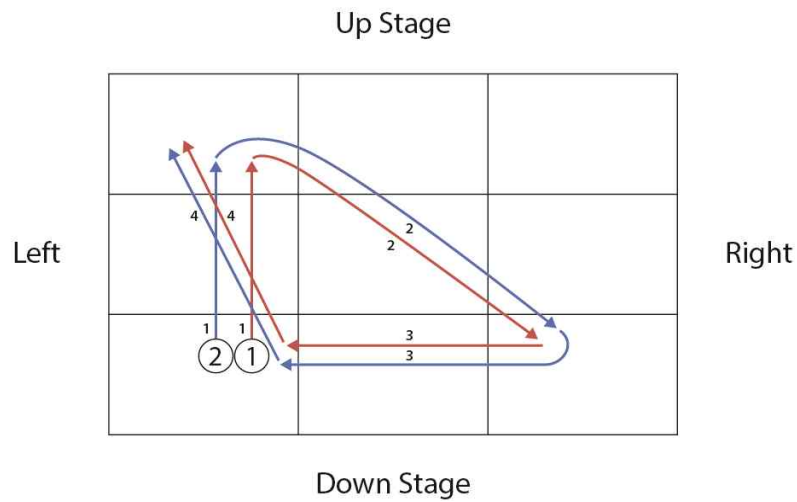


그림 3-11. 1장 등장인물의 동선 2

### 3.2.3. 무대장치 및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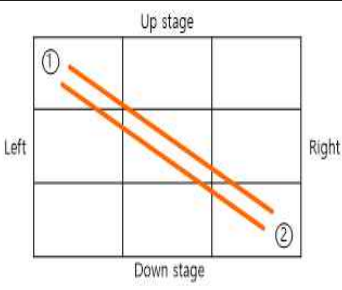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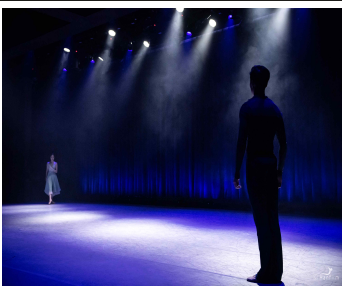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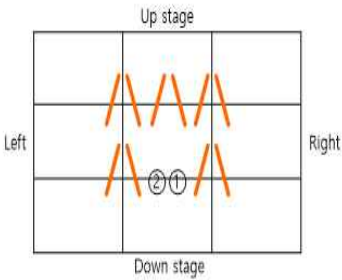
1장에서는 한 명의 남, 여자가 각각 Stage RD, Stage LU에서 등장할 때 좁은 두광 조명을 여러 개 사용하여 기다랗게 뻗은 길 모양의 특별한 연출을 하여 두 무용수의 등장을 집중적으로 나타내었다. 그들의 움직임을 진행할 때는 무대 전체에 넓은 두광과 역광을 사용하여 청색과 흰 조명이 섞인 차가운 색 조명으로 어두운 분위기를 조성하려 하였다.

### 3.2.4. 음악

프롤로그에 나온 음악과는 다른 분위기의 쇼팽 발라드 1번 곡이 나오는데 큰 피아노의 건반 소리의 음악이 먼저 흐르고 곧이어 무용수가 등장한다. 1장에서는 잔잔하게 시작하다 점차적으로 고조된다. 고조된 음악은 곧바로 다시 잔잔해지고 2장으로 장면이 전환된다.

표 3-3. 1장 세부분석

조명 방향: 

| 조명                                                                                  | 이미지                                                                                 | 세부분석                                                                     |
|-------------------------------------------------------------------------------------|-------------------------------------------------------------------------------------|--------------------------------------------------------------------------|
|  |  | <p>음악이 먼저 시작된 후 두광 밝기 60%와 역광 60% 밝기로 여러 개 켜지며 길 모양의 조명 사용함 (2' 00")</p> |
|  |  | <p>움직임을 진행할 때는 청색의 두광을 70% 사용하여 차가운 분위기를 조성함 (2' 00")</p>                |

### 3.3 2장: 행복한 연인의 모습

#### 3.3.1. 내용 및 안무 의도

유빙 시의 본문의 4연과 5연에 ‘유리창 너머에서 한 쌍의 연인이 서로에게 눈가루를/뿌리고 눈을 뭉쳐 던진다/양팔을 펴고 눈밭을 달린다/꽃다발 같은 회오리바람이 불어오고 백사장에 눈이 내린다/하늘로 날아오르는 하얀 모래알/우리는 나선을 그리며 비상한다’라는 행복한 연인들의 장면이 묘사된다. 이것은 앞의 1장과는 대조적으로 2장은 안정적이고 행복한 연인의 모습을 연출하였다. 마치 처음 사랑에 빠진 것 같은 그들은 서로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보이고 들리지 않는 것처럼 설레고 가슴 뛰는 사랑을 표현한다. 따라서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고, 몸의 방향을 대부분 동일한 곳을 향하고, 마주 보는 형태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안무를 구성하였다.

반면, 헤어짐을 앞둔 연인들은 행복한 연인들에게 자신들의 행복했던 과거를 투영하며 회상에 잠기는 장면으로 나타났다.

2장에서는 한 행복한 연인이 그들이 중심이 되어 그들만의 파스함, 설렘, 기쁨의 감정을 가지고 표현하며, 잔잔한 분위기와 작은 동작을 이용하여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 3.3.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그림 3-12. 행복한 연인의 모습 1



그림 3-13. 행복한 연인의 모습 2

그들은 [그림 3-12]과 [그림 3-13]에서 보이는 것처럼 서로를 가깝게 바라보고 같은 곳을 향하며 행복에 가득 찬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안정적인 기분과 차분한 느낌을 위해 그들의 움직임은 1장에 비해 비교적 정적이고 작은 동작과 느린 속도로 진행된다. 또한, 무용수들의 움직임 표현 역시 1장과 매우 대조적으로 표현하였다. 남자와 여자가 같이 주고받는 에너지를 사용하여 따스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2장에서는 무대 공간이 전환되며 행복한 연인이 Stage LU에서부터 헤어짐을 앞둔 연인과 교차되며 등장한다[그림 3-14]. 교차되는 동시에 여자 무용수가 먼저 downstage로 나오고 그 뒤를 따라 남자 무용수도 등장한다. [그림 3-15]와 [그림 3-16]의 ③번, ④번 무용수들은 각자 행복감을 표현하기 위해 짧은 솔로(solo)를 춘다. 그 후 그들은 마지막 기쁨의 절정을 함께 춘 후 무대 중앙(center)의 무대 위(upstage)로 이동한다[그림 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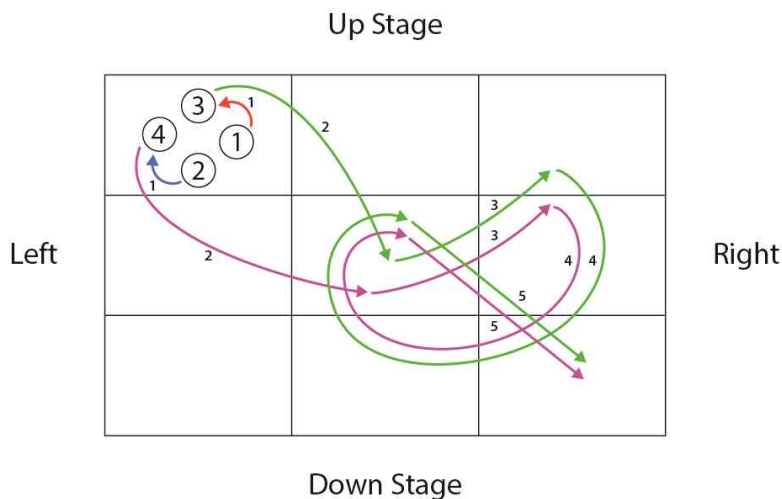


그림 3-14. 2장 등장인물의 동선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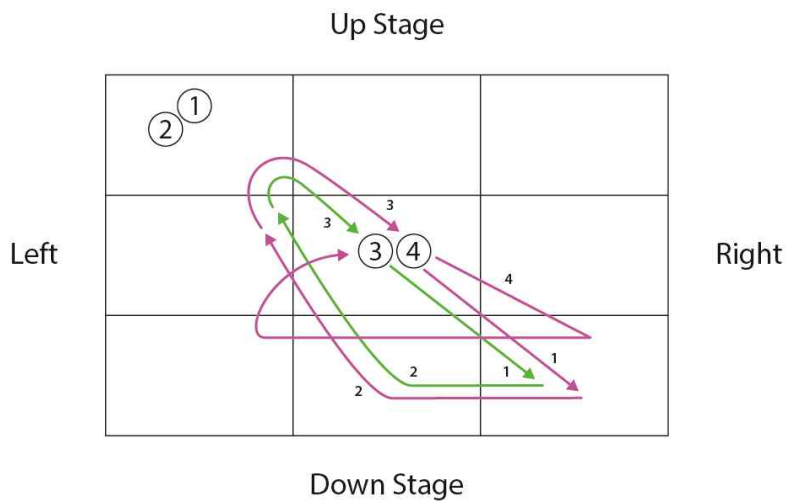


그림 3-15. 2장 등장인물의 동선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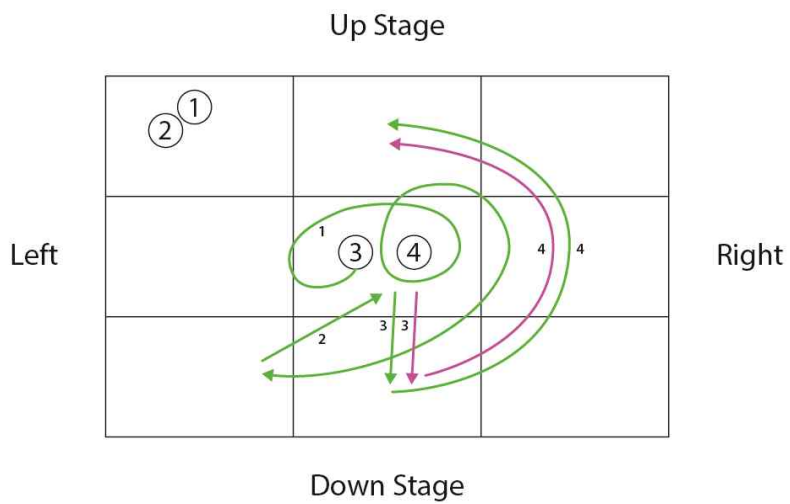


그림 3-16. 2장 등장인물의 동선 3

### 3.3.3. 무대장치 및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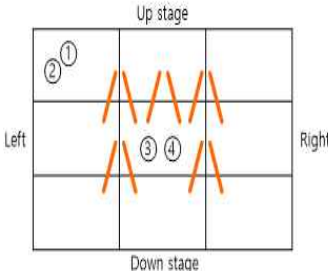
2장의 조명은 면적이 넓고 퍼지는 방향으로 두광과 역광이 사용되었다. 행복한 커플이 등장함과 동시에 사랑이 피어나는 듯한 이미지, 포근하고 안정적인 따스함을 주기 위해 주황빛과 초록빛이 사용되었다. 2장만의 밝은 표정과 의상의 색감이 더욱 잘 드러나도록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2장 끝 무렵은 초점이 행복한 커플에서 헤어짐을 앞둔 연인으로 바뀌며 조명이 바로 전환된다.

### 3.3.4. 음악

1장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2장으로 연결된다. 끊김이 없이 음악이 진행되기 때문에 무용수들의 호흡과 움직임으로 에너지를 이어가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1장에 비해 잔잔하고 차분하다. 3장에 나올 절정 부분이 2장에서 미리 차분히 나오는데 이것은 3장과 대조되는 움직임과 음악으로 대조적인 효과를 표현하며 복선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2장의 후반부에는 서서히 음악이 고조되고 가장 높은 음으로 올라가며 행복한 연인의 기쁨과 설렘을 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표 3-4. 2장 세부분석

조명 방향: ——

| 조명                                                                                  | 이미지                                                                                 | 세부분석                                                                        |
|-------------------------------------------------------------------------------------|-------------------------------------------------------------------------------------|-----------------------------------------------------------------------------|
|  |  | <p>1장과 음악이 연결되며 무용수의 등장과 동시에 조명이 따뜻한 색으로 바뀌며 주황색과 녹색 조명이 70% 사용(3' 00")</p> |

### 3.4 3장: 우리는 최초의 입맞춤으로 돌아갈 수 없다

#### 3.4.1. 내용 및 안무 의도

이별을 앞둔 연인은 2장의 행복한 연인을 보며 자신들의 행복했던 과거를 행복한 연인에게 투영하며 회상한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최초의 입맞춤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자명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결국 그들은 같은 미래를 바라보던 ‘우리’라는 단단한 빙하에서 야속한 시간을 뒤로 한 채 ‘나’와 ‘당신’의 각자 길로 나누어진다. 그들은 2장의 연인들을 보고 더욱 이별이 눈앞에 놓여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들의 심리적 복잡함과 감정들을 보여주며, 2장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더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다리나 팔을 크게 휘두르고 회전(turn) 동작을 자주 사용함으로써 폭풍같이 몰아치는 이미지를 연출했다.

3장은 최초의 입맞춤으로 돌아갈 수 없는 현실에 사랑했던 연인이 이별하는 과정에서의 심리적 갈등과 감정에 의미를 두고 구성하며 동작이 빨라지고, 무대 공간의 동선을 크게 자주 이동하며, 강한 움직임과 에너지, 몰아치는 음악과 거친 호흡이 차오름으로써 연인들의 괴로움, 복잡함, 후회 등의 감정선을 극적으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시와 동일하게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한 결말 보다는 이미지적 표현적인 결말을 맺으며 관객에게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자기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였다.

#### 3.4.2. 움직임 구성 및 표현방법



그림 3-17. 이별을 앞둔 연인의 모습 1



그림 3-18. 이별의 앞둔 연인의 모습 2

2장의 행복한 연인들이 사라지고 여자 무용수가 Stage LU에서 Stage RD로 행복한 연인들이 있었던 곳을 가로지르며 뛰어나온다. 분위기가 다시 1장과 같이 차가워지고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극대화 표현하기 위해 상하 움직임이 큰 도약이나 2인무 기술, 회전, 동작범위가 점증되는 강한 움직임 위주로 구성하였다. 또한, 무용수들이 서로 주고받는 에너지가 가장 강하고 호흡이 빨라지고 공간의 이동과 움직임이 많게 구성하였다. 후반부에는 2장의 행복한 연인이 가운데서 있고 헤어짐을 앞둔 남자와 여자가 그들에게 손을 뻗으며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의미를 강조하여 동작을 표현하였다. 마지막 장면으로는 서로 갈라지며 각자의 소용돌이로 천천히 떠나려가는 것을 담담하면서도 여운이 남는 퇴장으로 마무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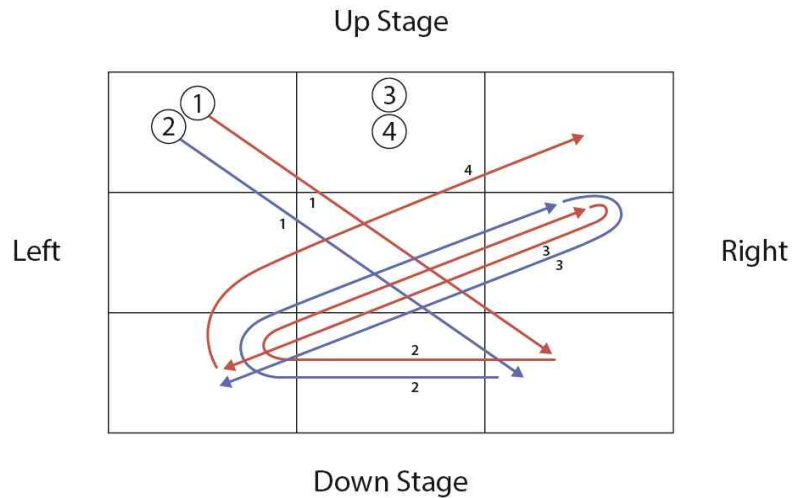


그림 3-19. 3장 등장인물의 동선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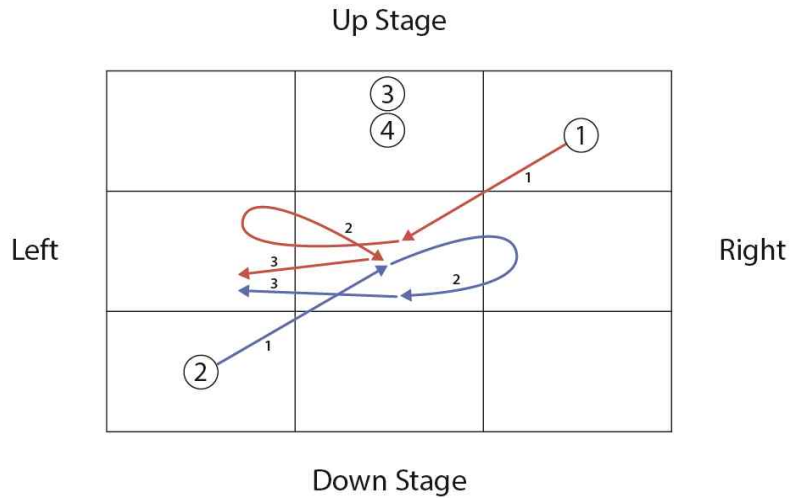


그림 3-20. 3장 등장인물의 동선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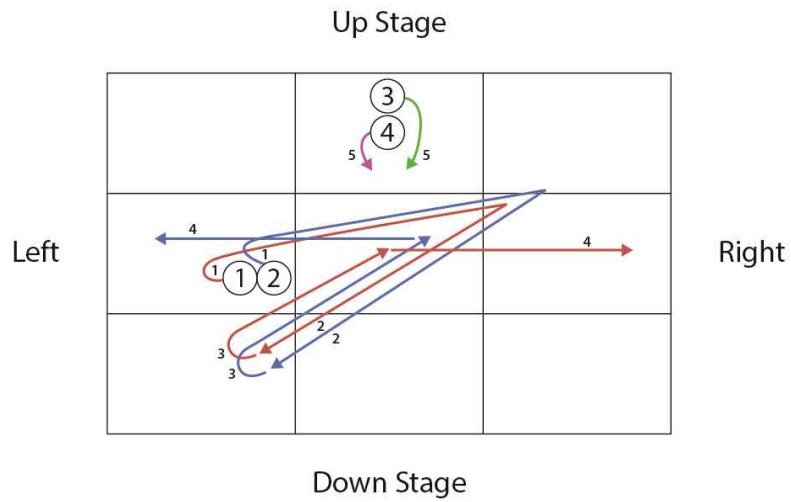


그림 3-21. 3장 등장인물의 동선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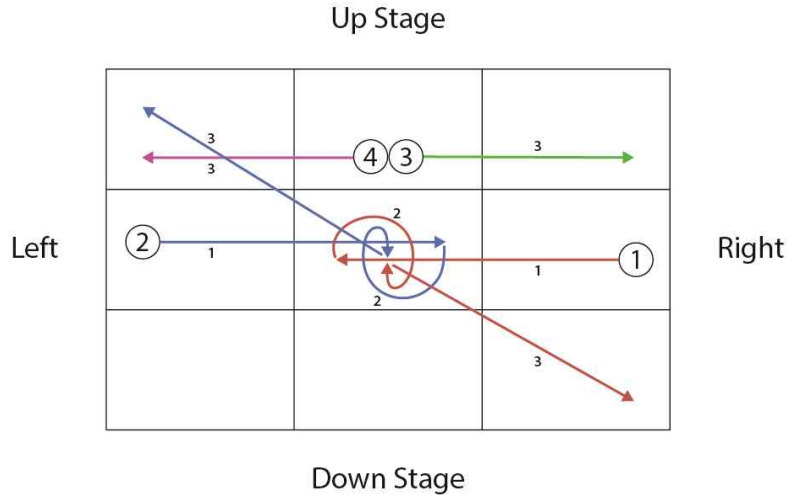


그림 3-22. 3장 등장인물의 동선 4

### 3.4.3. 무대장치 및 조명

1장과 마찬가지로 차가운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해 무대 전체적으로 넓은 두광과 역광으로 차가운 색 조명을 사용하였다. 2장에서 3장으로 순식간에 조명이 전환됨으로써 마치 2장을 하룻밤 꿈꾼 것 같은 느낌을 주고자 하였다. 동작이 진행되다가 남자와 여자가 각각 Stage LD(Left Down), Stage RU(Right Up)에서 좁고 강도가 강한 두광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각각 솔로를 추며 무용수 내면의 감정을 더 드러내고자 의도하였다. 솔로 부분이 지난 후 넓은 두광으로 바뀌며 감정과 음악, 움직임이 최고조에 이르는데 이때 downstage에 붉은색의 두광을 사용하며 절정 상황임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마지막 장면은 양쪽 상, 하수에서 각 두 명의 무용수가 가운데 중심을 바라보며 행복한 연인들을 가운데 두고 두광으로 강조하며 과거로의 회기가 불가하다는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작품에서의 공간과 움직임과 이미지를 역광과 두광을 넓고 좁게 또는 강도를 강하거나 약하게 표현하며 작품의 분위기를

자아내고자 하였다. 무용수들이 퇴장하며 조명도 서서히 꺼지고, 작품의 제목과 같은 유빙이 바다 위에 떠 있는 영상[그림 2-5]과 신철규 시인의 ‘유빙’ 시의 일부 내용[그림 2-6]을 영상으로 제작해 상영하였다. 상영한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계탑에 총을 쏘고 손목시계를 구두 뒤축으로 으깨버린다고 해도  
우리는 최초의 입맞춤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림 3-23. 유빙 이미지 장면

시계탑에 총을 쏘고  
손목시계를 구두 뒤축으로 으깨버린다고 해도  
우리는  
최초의 입맞춤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림 3-24. 시 영상 2  
(회기 불가에 대한 은유적 표현)

#### 3.4.4. 음악

3장 역시 2장에서 바로 연결이 되며 음악은 점점 고조된다. 폭풍이 몰아치듯 커지고 빨라지며 절정에 이른다. 3장의 이별을 앞둔 연인이 이별을 수용하는 과정에서의 괴로움의 감정과 움직임의 동선이 확장되며, 빠른 동작을 하기 적합하다고 생각하였다. 음악이 끝나고 무용수가 퇴장하며 영상이 상영되는데 이때, 프롤로그에 있던 음악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아련하면서도 여러 가지의 의미가 담긴 채 흐르는 음악은 맨 처음과 마지막에 같은 음악을 사용함으로써 유빙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표 3-5. 3장 세부분석

조명방향: —

| 조명 | 이미지 | 세부분석                                                                      |
|----|-----|---------------------------------------------------------------------------|
|    |     | <p>2장과 음악이 연결되고 무대 전체에 넓은 청색의 두광 70%로 전환되며 차가운 분위기 조성함 (1')</p>           |
|    |     | <p>남, 여가 각자 독무를 할 때 좁고 강한 흰색의 두광을 80% 사용하여 그들의 내면의 감정을 나타냄 (0' 50")</p>   |
|    |     | <p>가장 고조되는 부분으로써 downstage에 붉은빛의 넓은 두광 조명 60%로 절정의 부분임을 표현함 (1')</p>      |
|    |     | <p>최초의 입맞춤으로 회기할 수 없다는 것을 가운데 두광 80% 사용하며 집중적으로 표현함 (0' 30")</p>          |
|    |     | <p>마지막 장면으로 차가운 분위기의 좁고 강한 흰색 두광 60%를 비추다가 무용수의 퇴장과 함께 조명 꺼짐 (0' 30")</p> |

## IV. 결 론

본 연구는 시인 신철규의 2011년 조선일보 신춘문에 당선작을 소재로 제작된 무용 창작 「유빙 流水」에 대한 작품 분석을 통해 작품의 의미와 구조를 연구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자는 시의 의미와 내용을 해석 및 분석하고 본 연구자의 작품에 내재된 드라마 발레 성향을 바탕으로 통해 작품이 의도하고자 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 연구하였다.

이별을 앞둔 연인이 맞물린 톱니바퀴처럼 마지막까지 서로를 포기하지 못한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행복한 연인을 보며 그들은 행복했던 과거를 투영시켜 행복했던 모습을 회상한다. 그들은 현실로 복귀해 시계탑에 충을 쓰고 손목시계를 구두 뒤축으로 으깨버린다고 해도 시간은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아울러 시간을 되돌려 최초의 입맞춤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존재의 불가능성을 숙지한다. 따라서 그들은 서로의 방향, 속도, 시간을 뒤로한 채 각자 유빙처럼 소용돌이 속으로 떠내려간다는 해석을 하였다. 이런 해설을 바탕으로 소통과 공감 형성을 위해 드라마 발레 스타일의 안무를 의도하였다.

드라마 발레는 낭만발레, 고전발레와 달리 사실적이며 스토리에 바탕을 두고 전개가 되기 때문에 비교적 관객들의 공감대 형성과 이해과정이 쉽고 관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 그러나 드라마 발레의 수와 연구가 많지 않아 더욱 많은 창작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본 작품은 구조와 인물의 행동을 남녀의 사랑과 이별의 심리적 감정에 중점을 두고 움직임 표현 방법을 고안하였다. 프롤로그와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구조와 인물의 행동, 장경의 조명, 의상, 영상, 음악을 드라마 발레의 형식적인 특성에 맞추어 활용하여 작품의 의미와 의도에 대해 종합 예술의 다양성을 보여주고자 했다. 프라이 타크의 희곡의 기교를 바탕으로 프롤로그, 1장 발단, 2장 상승, 3장 절정과 하강과 마지막 영상을 대단원의 장면으로 구성했다. 또한, 본 연구자가 시를 해석 및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물의 행동에 맞게 움직임과 성격을 부여하였고, 분위기와 표현의 극대화를

위해 장경을 활용하였다.

‘나’와 ‘당신’이 만나 ‘우리’라는 관계를 형성해 살아가다 다시 원래의 ‘나’와 ‘당신’으로 돌아가나 ‘처음’의 상태로 회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때 사랑했던 연인의 이별에 대한 인식 과정과 그 사실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심리적 갈등과 감정에 중점을 두어 연구하였다. 결국 연인은 유빙처럼 갈라져 이별을 직면하는 결론을 가지지만 본 연구자는 이를 상징적으로 묘사하였다.

시에서는 두 연인의 성향을 상반된 개념을 사용해 은유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는데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 뜨거움과 차가움, 입김과 눈물이라는 양가적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 이별의 원인을 암시한다. 이러한 상반된 개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직접화법이 아닌 이미지화된 표현으로 나타냄으로써 섬세한 표현을 통해 관객이 스스로 관련 이미지 생성해 자기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연구 초기에는 2장의 행복한 연인 대신 군무 사용을 계획하였으나 공연 시간, 군무 활용도, 무용수와 안무가가 협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무 대신 행복한 연인의 2인무를 삽입하게 된 과정을 거쳤다. 또한, 무대 위에서 가장 난이도 높은 시공간의 변화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무대장치의 동반이 필수적이다. 무대장치에 백색의 천을 설치하여 시공간의 변화를 표현하고자 의도했으나 무대환경의 제약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무대의 상하 대비 가로 길이가 유독 길어 영상 투사 비율의 조정이 어려웠고, 조명디자인 역시 층고의 한계로 적극 활용하지 못한 점이 본 연구의 실행에 있어 제한점으로 남았다. 차후 더욱 효과적, 효율적으로 움직임과 협응 할 수 있는 무대장치와 조명의 활용방법에 대한 고안과 적용이 요구된다.

## 참 고 문 헌

- 김나영. (1993). “무용시와 무용극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내재된 문학적 구조와 연관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p.51.
- 김다희. (2014). “존 노이마이어(John Neumeier)의 「까멜리아 레이디(The Lady of the Camellias)」에 나타난 드라마적 성향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p.18.
- 김아영. (2008). “공연 예술에서의 영상 미디어 활용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학위석사논문, p.17.
- 김태원. (1991). 『김태원의 춤문화론』, 서울: 현대미학사.
- 신철규. (2017). 『지구만큼 슬펐다고 한다』. 파주: 문학동네, p.67.
- 신형철. (2011). 『동일한 것이 어느 날 정반대의 것이 될 때』. 신형철의 문학 사용법. 한겨레21 ([http://h21.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28918.html](http://h21.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28918.html)).
- 신형철. (2017). 지구만큼 슬펐다고 한다. 『6년 동안의 울음』, p.145.
- 신 호. (2013). “조명을 통한 무용 예술의 무대 공간 시각화 방안 연구”. 상명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p.26.
- 안혜원, 김은수. (2015). 무용음악의 고유성과 역할.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6권, 4호.
- 윤은지. (2005). “Frederic Chopin Ballade Op.23 No.1 g minor의 연구 분석”. 계명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p.4.
- 장수진. (2012). “극적발레에 나타난 문학성 연구: 존 크랑코(John Cranko)의 오네긴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p.36.
- 정종훈, 이진숙. (2004). “드라마틱 발레의 형식 특성에 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박사논문.
- 조선일보. (2010). 『신춘문예/ 시 당선작 유빙(流水) 신철규의 당선 소감』. 조선닷컴 북스 ([http://book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1/03/2011010300429.html](http://book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1/03/2011010300429.html)). 검색일 2019.8.9

- 최지혜. (2019). “2010년대 시에 나타나는 슬픔의 양상 연구 : 신철규, 박시하, 김현의 시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pp.81-82.
- 커피에 쓰다. (2018). 『신철규(시인)/유빙』. (<https://blog.naver.com/groastinglab/221360482276>). 검색일 2019.10.13.
- 황병승. (2014). 시가 있는 아침 『유빙(流水)』. 중앙일보(<https://news.joins.com/article/16437942>) 검색일 2019.5.24

## 부 록

### 부록 1. 공연 프로그램 요약

|          |                                                                                                                                                                                                                                               |
|----------|-----------------------------------------------------------------------------------------------------------------------------------------------------------------------------------------------------------------------------------------------|
| 작품명      | 유빙(流水)                                                                                                                                                                                                                                        |
| 일시       | 2019년 11월 23일 토요일 오후 4시                                                                                                                                                                                                                       |
| 장소       | 한성대학교 낙산관 대강당                                                                                                                                                                                                                                 |
| 안무       | 권보빈                                                                                                                                                                                                                                           |
| 음악       | Ezio Bosso (2016). " <i>Rain, In Your Black Eyes</i> "<br>F. Chopin (1836). " <i>Ballade No. 1 in G Minor, Op. 23</i> "                                                                                                                       |
| 출연       | 권보빈, 용기, 신지민, 도윤현                                                                                                                                                                                                                             |
| 의상연출     | 권보빈                                                                                                                                                                                                                                           |
| 조명감독     | 주영석                                                                                                                                                                                                                                           |
| 영상제작     | 권보배                                                                                                                                                                                                                                           |
| 영상/사진 기록 | 김정환                                                                                                                                                                                                                                           |
| 소요시간     | 15분 30초                                                                                                                                                                                                                                       |
| 무대스텝     | 황상일, 윤태웅, 김다혜                                                                                                                                                                                                                                 |
| 안무의도     | 신철규의 시 '유빙'에서 얻은 이별에 대한 잔상을 바탕으로 이 작품을 안무하게 되었다. 잔잔하면서도 깊고 강렬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쇼팽의 발라드 1번과 드라마 발레 스타일의 안무를 사용하였으며, 프롤로그와 3장의 마지막 장면에 시와 주제에 대한 이해를 위해 영상을 활용하였다. 누구나 한 번쯤 만남과 이별을 경험했을 것이다. 서로 맞물리며 나아가다 다시 각자의 소용돌이로 유빙처럼 떠도는 인생의 단면에 대해 생각해 본다. |
| 작품내용     | 사랑에 눈이 먼 연인은 자신들의 사랑이 단단한 빙하처럼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간은 영원불변할 것 같은 빙하마저 녹여버리고, 갈라진 빙하는 각기 유빙이 되어 망망대해를 떠돈다. '우리'에게도 유빙처럼 원래의 '나'와 '당신'으로 돌아갈 때가 온다.                                                                                          |

## 부록 2. 공연프로그램

2 0 1 9  
HANSUNG  
UNIVERSITY

# 일반대학원 무용학과 석사학위 청구작품 발표회

**무용학과 지도교수**  
김남용 교수 (한국무용) 학과장  
박영애 교수 (무용이론)  
박재홍 교수 (발레)  
정석순 교수 (현대무용)

**조명감독**  
주영석

**촬영감독**  
Hanfilm

**디자인 및 영상**  
BeDesignary

**주최**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용학과

**HU 한성대학교**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신교로 16길 116(성신동27) 한성대학교  
TEL: 02-760-4107 | www.hansung.ac.kr

2019.11.23 (토)  
오후 4시

한성대학교  
낙산관 대강당

일곱으로 뜨거운 음식을 식힐 수도 있고  
누군가의 열 손을 녹일 수도 있다

눈물 속에 한 사람을 수놓지킬 수도 있고  
눈물 한 방울이 그를 얼어붙게 할 수도 있다

당신은 시계 방향으로,  
나는 시계 반대방향으로 커피 잔을 젓는다  
말물린 톱니바퀴처럼 우리는 마지막까지 서로를 포기하지 못했다  
전경, 단단한 눈동자가 되어갔다  
일곱과 눈물로 만든

유리창 너머에서 한 쌍의 연인이 서로에게 눈가물을  
뿌리고 눈을 물치 던진다  
양팔을 펴고 눈발을 떨린다

꽃다발 같은 회오리바람이 불어오고 백사장에 눈이 내린다  
파랗고 날아오르는 파랗 모래알  
우리는 나선을 그리며 비장한다

공중에 펠릭스는 둘  
세아란 커튼  
해변의 물거품

시계탑에 손을 얹고  
흔들시계를 구두 뒤축으로 으메비린다고 해도  
우리는  
최초의 입맞춤으로 돌아갈 수 없다

나는 시계 방향으로  
당신은 시계 반대방향으로  
우리는 천천히 각자의 소유물이 속으로  
다른 속도로 비내려가는 유빙처럼,

- 유빙(流氷) / 진결규

**작품 제목**

**지도교수**

**안무자**

**음악**

**안무의도**

**작품 내용**

**출연자**

**유빙(流氷)**

박재홍

권보빈

Ezio bosso: Rain, In Your Black Eyes  
Chopin: Ballade No. 1 in G Minor, Op. 23

신월규의 시 '유빙'에서 얻은 이별에 대한 전상을 바탕으로 이 작품을 안무하게 되었다. 잔잔하면서도 깊고 강렬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소렐의 발라드 1번과 드라마벌레 스타일의 안무를 사용하였으며, 프로그래와 에필로그에 시와 주제에 대한 이해를 위해 영상을 활용하였다. 누구나 한 번쯤 만남과 이별을 경험했을 것이다. 서로 맞물리며 살아가다 다시 각자의 소유물이로 유빙처럼 떠도는 인생의 단면에 대해 생각해본다.

사랑에 눈이 먼 연인은 자신들의 사랑이 단단한 빙하처럼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간은 영원불변할 것 같은 빙하마저 녹여버리고, 갈라진 빙하는 각기 유빙이 되어 망명대해를 떠돈다. '우리'에게도 유빙처럼 원래의 '나'와 '당신'으로 돌아갈 때가 온다.

  
권보빈

  
용기

  
신지민

  
도윤현

## ABSTRACT

### A Study on the Creative Dance Work, 「Yu Bing (Drift Ice)」

Kwon, Bo-Bin

Major in Dance Performance

Dept. of Dance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eaning and structure of the new dance work, "*Yu Bing (Drift ice)*," which is based on Shin Cheol-gyu's poem of the same title. The poem is on the eternal subject of love and separation, but the real forte of the poem as a theme for choreography lies in the unique way it describes the process of acknowledging the separation and accepting the loss. A moment of love and separation is coming for anyone, and by depicting the experience in a symbolic fashion, the poem makes the reader identify with the poem.

The dance piece, "*Yu Bing (Drift ice)*," consists of a prologue and three acts. This study analyzes how the new choreography uses the contents, movements, stage equipment, lighting, music, costumes, and stage videos, in each act, to express the flow and the symbolism of the poem. The prologue tries to engage the audience by hinting at the overall contents and intentions of the work using backlight and stage videos. In Act 1, the two lovers appear. They have grown apart, but are not ready to accept t

he fact. This hesitation and ambivalent feelings are expressed using mainly the movements of the upper body, the hands and the line of sight of both dancers. In the second act, another happy couple is passing by and the two lovers remember their own happy past. Here, a calm and bright atmosphere is created with images and emotions that are in contrast with the first act. In the last act, the lovers have finally accepted the reality that they cannot go back to their first kiss. Their psychological journey and the internal conflicts along the way are expressed using red light, violent movements, fast music, long and chaotic pathways and an ending video clip.

In the original poem, 'I' meet 'you,' to become 'we,' but then go back to separate 'I' and 'you' again. But 'you' and 'I' cannot go back to who 'you' and 'I' used to be in the first place. The poem also metaphorically depicts the two lovers' opposite personalities using contrasting images such as clockwise and counterclockwise movements, hot and cold, warm breath and tears, hinting at the cause of the breakup.

The dance piece, "*Yu Bing (Drift ice)*," also tries to convey these contradictory concepts metaphorically by image-creating movements. For instance, the lovers' parting in the end is not directly described, but delicate and small movements are used to encourage the audience to form their own images.

As a final note, in order to stage the changes in time and space of the different acts more effectively, it will be required to devise a method of using the stage device and lighting that can better coordinate with the changes of the scenes and dance movements more effectively in the future.

【Key words】

Dance Creation, Shin Cheol-gyu, Yu Bing (Drift ice), Dance Metaphor